**노시로 칠석 ‘천공의 불야성’**

‘노시로 칠석’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손으로 칠한 선명한 색의 ‘성곽형 등롱’이 하늘에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성곽형 등롱은 가장 큰 것으로 무게는 약 25톤이 나가고, 높이는 24미터가 넘습니다. 이 축제는 ‘천공의 불야성’이라고 불리며, 정식 영문명은 “Lantern Castles in the Sky”(하늘에 떠있는 성곽형 등롱)이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하늘에 떠있는 잠들지 않는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등롱의 선명한 빛은 노시로에서 밤의 어둠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나고야성 모양의 독특한 등롱은 약 2세기 전 에도시대(1603~1867년) 후기에 열린 노시로 칠석 축제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송전선에 닿지 않도록 등롱 높이가 약 8미터로 제한되었지만, 이후 송전선이 땅속에 매설되면서 2013년에는 17.6m의 등롱 ‘가로쿠(嘉六)’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메이지시대(1868~1912년) 사진에 찍혀 있는 오리지널 나고야성 등롱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4년에는 과거 히야마성 성주였던 안도 지카스에(1539~1587년)의 이름을 따 ‘지카스에(愛季)’라는 이름이 붙은 24.1m의 등롱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각각의 등롱 윗부분에 장식된 웅장한 샤치(호랑이 머리와 잉어 몸을 가진 상상 속의 생물)는 다채로운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칠석은 7월 7일에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두 신의 이야기에 얽힌 중국 유래의 축제입니다. ‘칠석’은 ‘칠일 저녁’을 의미하며, 오늘날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는 7월 7일에 칠석을 기념하지만, 노시로에서는 지금도 음력에 맞추어 8월 초순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8월 3일과 4일에 개최되며, 메인 퍼레이드에는 악기 연주자, 무용수, 그리고 등롱을 끌고 가는 이 등 총 7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축제 견학은 무료이지만, 유료 좌석을 예약하면 운행 경로를 따라 더 가까운 거리에서 견학할 수 있습니다.